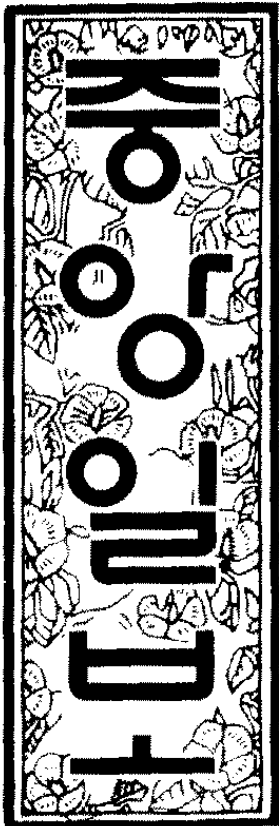


# 한인사회



미주판 뉴욕지사

## 프랑스주최 「예술을 위한 과학상」 MIT 안경원박사 수상영예 「원자하나로 작동하는 레이저」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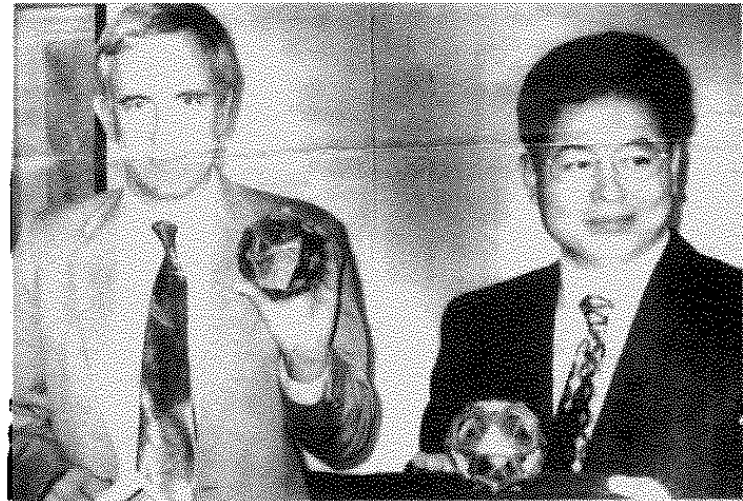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예술을 위한 과학상」(Science For Art)을 포스트 닥터 과정에 수학중인 한인 유학생이 받았다.

프랑스 모이 헤네시사(MOET HENNESSY)가 17일 맨하탄 81가 5에브뉴 스탠포드 호텔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MIT물리학과 안경원박사가 지도교수와 함께 「원자하나로 작동하는 레이저」를 만든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이날 금년도 주제인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맞춰 선정된 수상자 안박사 등 8명이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분자 에너지」로 60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도날드 그리저박사가 수상자들의 논문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리저 박사는 특히 안박사 팀의 논문에 대해 「마이크로 레이저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저작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민경용 기자>



안경원 박사가 지도교수와 함께 「예술을 위한 과학」상을 받은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인터뷰 「예술위한 과학」수상 안경원 박사

「원자(Atom) 하나로 작동하는 레이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제 과학계에서 획기적인 공헌으로 받아들여 진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상으로 알려진

그는 앞으로 불질과 빛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발견을 바탕으로 원자의 숫자를 늘리므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안박사는 서울대 공대 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포스트 닥터 1년

## “국제과학계 공헌 인정 받아 한국인 잘하는 것 보여줄터”

「예술을 위한 과학(Art)상을 받은 안경원박사(36·MIT 포스트 닥터과정)는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보통 레이저는 수천억개의 원자 또는 분자가 미러(Mirror)사이에서 「흥분」되어야 만들어지지만 이제 이처럼 원자와 분자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라고 안박사는 수상작의 내용을 설명한다.

과정에 있다.

「앞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서 훌륭한 연구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인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안박사는 수학·물리 등 순수과학에 야망을 갖고 도전하는 한인학생들이 많이 나와 하루빨리 「노벨상 불모지」의 불명예를 벗어나 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용 기자>